

한국농어촌공사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

- 위계욱 기자

수계 불균형·기후위기 극복 위한 '지역맞춤형 SOC사업' 적극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31년간 공사에 재직하며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산증인으로 통한다. 지난해 1월 1일 취임한 이래 전남지역본부 자원을 활용한 자립기반 강화와 농어촌 탄소중립 선도, 디지털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과 소통 확산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1995년 공사에 입사해 기술안전품질원 진단기획부장과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장, 기반사업부장을 거쳐 2022년 해남·완도지사장, 2024년 본사 수자원 시설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품질명장(2015년)으로 선정됐으며 기술사를 취득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본지는 최근 김재식 본부장을 만나 전남지역본부의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남지역본부는 전국 9개 지역본부 중 가장 큰 조직이다. 지역본부 중 가장 많은 18개 지사가 있고 약 800여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저수지 1,050개소, 양배수장 805개소 등 총 2,976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중으로, 이는 공사 전체 농업기반시설물의 20.4%에 해당하며 전국 최대 수량이다. 또한 2026년 기준 사업비 9,419억원 집행 예정으로 사업비 1조원 시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 최근 지역 내 농업인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명예본부장' 위촉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단체와 교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은 공사 최고 고객으로, 고객의 목소리는 공사 경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고객만족과 농업인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관내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중앙회 등 6개 단체 농업인단체장들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해 신속한 현장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청년농과 미래농업(스마트팜) 육성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4-H 중앙연합회장이 명예본부장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위촉된 명예본부장, 명예지사장은 공사와 농업인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통해 공사가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농업인들의 고충 및 필요 사항을 사업 및 업무에 반영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며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남지역본부는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미래형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다. 일상화된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과 극한호우에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는 올해 총 73지구 1,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순 서성지구 등에 실시하는 치수능력확대사업,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생활용수 등을 확보·공급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홍수 발생 시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지역간·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강화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고흥, 영암 등지에 4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지구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장흥군에서 1,014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수주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대비를 위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저수지, 양배수장 등 75지구, 686억원, ▲용배수로 57지구, 559억원, ▲저수지 준설 44지구, 177억원, ▲방조제 9지구, 99억원 등 농업인이 농업용수와 재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일상화된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비해 올해는 축조 후 7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 2개소에 대해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저수지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노후저수지 58개소에 대해서도 재구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진단 법적 의무가 없는 3종 시설물(양배수장, 수로교) 1,231개소에 대해 개보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농촌의 미래를 여는 농지은행 및 청년농 지원사업이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력 육성과 세대전환 및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163억원 증가한 3,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농가 노후보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넷째,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 개발사업이다. 소멸위기의 농촌을 농업인, 도시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생활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총 155개 지구에 1,5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문화·복지교실 등 체감형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인 만큼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큰 파도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 농촌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본부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농어촌을 더 살기 좋고, 일할 맛 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는 올해 농촌지역 118지구, 949억원, 어촌지역 37지구 602억원을 포함해 총 155개 지구, 1,5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길을 넓히고 건물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활력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公社는 2005년 소수력 발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2개 지구, 306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전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본부는 소수력과 태양광을 합쳐 총 21개 지구에서 35.3MW 규모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족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재원 조달을 위해서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느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3개 기관이 통합되어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한 해부터 농민들에게 징수하던 수세가 폐지되었고, 부족분은 자산 매각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금년 기준 公社 전체적으로 매년 6,630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고보조금은 1,500억여 원에 불과하여, 자산매각과 부대사업(용수판매, 토지임대 등)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고도 해마다 약 2,2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수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여 公社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수자원공사는 수세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각각 받지만 우리 公社는 농민분들에게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公社가 찾은 대안이 바로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公社가 관리하고 있는 담수호 및 대형저수지 위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은 발전사업자와 公社, 지역주민이 나누게 됩니다. 소규모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온 발전수익중 公社분은 용배수로 정비, 노후시설물 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므로 결국 농업인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본부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기내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관심 사업과 앞으로 포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 동안 전남지역본부를 이끌며 반드시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착시키겠다. 수계 불균형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대형 SOC사업'을 각 지사별로 신규 발굴해 단순 농업용수공급을 넘어 이·치수 종합 대응 등 기능을 고도화하고 권역 연계 및 기능 통합 방식으로 대형화하겠다.

또한 전남도에 들어서게 될 AI데이터센터 등과 직접연계(직접 PPA방식)해 공사 부지에'수요처 연계형 태양광 사업'을 신규 추진해 데이터센터 인접 최적 대상지 발굴 및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추진 하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중첩되거나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78년도에 준공된 4대호(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의 콘크리트 노후 용수간선 수로(253km)를'4대호 지능형 관수로 전환사업'을 통해 가뭄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용수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농업용수 효율화를 이뤄내겠다.

특히 전남 77개소 배수갑문이 갯벌 때문에 물이 빠지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홍수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배수갑문 갯벌퇴적 방지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에서 가장 힘든 민원중 하나인 어민과의 마찰 해결을 위해'간척지 담수호 방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청년이 돌아오는 스마트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 미래 농업의 핵심인'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농업인들이 전남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셋째, 안전한 건설현장, 안전한 시설관리이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제 아무리 좋은 사업과 좋은 구상을 한다 할 지라도 안전이 무너지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본부는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이 '제로(ZERO)'였고 올해 4년째에 도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5대 핵심수단과 4대 중점과제 및 12대 세부실행 계획을 적극 이행하고 전남본부만의 중점 강조 사항인 전체 공사현장 CCTV설치 및 지사장실 관재시설 설치, 건설기계 접근감지 시스템 및 모니터(어라운드 뷰) 설치, 지붕공사(지역개발사업, 스마트팜 등) 시 반드시 본부점검 후 실시를 통해 가장 안전한 전남본부를 만들어 가겠다.

■ 끝으로 본지 10만 독자를 비롯해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농업인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기후 위기와 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농업은 우리 국가의 근간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농업인이 행복해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을 지켜나가며 농업인들과 늘 함께 하겠다.